

기고



김인 /안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구명조끼’ 안전은 입고 위험은 벗고

삶(Life)을 낚기 위해, 구명조끼(Life jacket) 입어보자

북적인 도심에서 벗어나, 넓고 푸른 바다를 보고 싶다면 이처럼 맘이 편안해지고 좋을 수 없다.

한번은 낚시객에게 물어본적 있다. “사장님, 낚시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러자 그분은 “나는 세상에서 낚시가 제일 재밌다. 바다에 나와 낚시를 즐기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피로감이 다 없어질 정도로 좋다”라고 들은적이 있었다.

이렇게 바다는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여민들에게는 삶(Life)을 영위 해주는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바다는 누구에게나 다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날씨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선박을 집어 삼킬만한 파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매서운 바람, 5분도 채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추위...

나는 이렇게 바다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지만 바다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우리 국민들은 바다의 무서움이 몸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2022년 연안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30여건의 연안해양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사망자는 약 100여명으로 연안해양사고 발생 대비 약 16%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사망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사고는 90%이상을 웃돌고 있다.

구명조끼는 부력 효과가 있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주고 구조업무에 적합한 주황·빨강색 등 시별색으로 제조되어 시인성이 좋아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고 체온유지에 유리하여, 바다에서 고립이 되었을 경우 생존시간을 늘려준다.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잔소리로 느껴질 만큼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바다에서는 그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인명 안전 장비임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다. 이에, 안도해양경찰서는 ‘22년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의 사고는 90%이상을 웃돌고 있다. 구명조끼는 부력 효과가 있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주고 구조업무에 적합한 주황·빨강색 등 시별색으로 제조되어 시인성이 좋아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고 체온유지에 유리하여, 바다에서 고립이 되었을 경우 생존시간을 늘려준다.

올 한해도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통해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 홍보·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꾸준한 노력과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구명조끼에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나, 활동 중 불편함과 더운 날씨에 답답하여 구명조끼를 벗고 있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불편하고 답답해도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구명조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바다와 갯바위로 향할 낚시 및 해양 레저 활동 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삶(Life)을 낚기 위해 구명조끼(Life jacket)를 입어보자.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다양한 종류 화재·소화기 숙지하기



김재혁 /여수소방서 여서192안전센터

을 가지고 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로서 기름, 연료 그리고 페인트 등의 가연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해당 급은 A급과 다르게 재가 남지 않으며, 연기에서는 흑색을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물 소화기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C급 화재는 전기 부품, 전기 계통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화재다.

해당 급 역시 B급과 마찬가지로, 물 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연성 물질인 전선 피복 등에 가스가 퍼져 질식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급 화재는 금속 물질(티타늄, 리튬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다.

이 역시 B와 C급 화재처럼 물 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냉각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급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화기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압식의 분말소화기 형태로,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체의 고압가스를 이용, 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라는 존재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이용해 냉각 또는 공기 차단의 효과를 활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현재 이러한 소화기는 상가와 건물 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이젠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소화기의 종류를 살펴보기 전, 알면 도움이 될 화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다.

먼저, A급 화재는 가장 일반적인 화재로서,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특징으로는 화재 발생 후 재가 남으며, 연기에서는 백색을 띄는 특징

화 약품인 탄산수소나트륨 분말이나 제1인산암모늄 분말을 뿌려 화재를 제압하는 소화기다.

이 소화기는 나무, 종이 등의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인 A급, 유류 화재인 B급, 전기화재인 C급 화재에 적합한 보편화 된 소화기이기도 하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액화하여 충전한 소화기로, 액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로 가스를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구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소화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동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해당 소화기는, 유류 화재인 B급 화재와 전기화재인 C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다.

할로겐(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할론 가스를 소화 약품으로 사용하는 소화기로, 49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출되면 안 된다.

분말소화기와 동일하게 A, B, C급 화재와 더불어 아래에서 알아볼 K급 화재에도 적합한 소화기다.

화재마다 그 특성과 종류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이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장소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를 배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예방하길 바란다.

심폐소생술, 누구나 살릴 수 있다



이승환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른다.

심장이 멈춘 뒤 4분 이상 경과하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2차 손상이 생길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이란 호흡 또는 심장 박동이 정지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호

흡소생술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의식확인 후 해야 한다. 환자에게 곱질 및 내출혈 같은 식별되지 않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된 주먹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둘째 119 신고요청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청할 경우 서로에 미루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람의 옷 색깔, 악세서리 등을 지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30회와 인

공호흡 2회를 무한 반복한다.

가슴 압박은 너무 빠르게 시행하지 말아야 하며 가슴이 누르거나 전과 후의 깊이가 같아야 한다.

30회를 실시한 후 인공호흡 2회를 전문의료인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나거나, 지쳐서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을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글로만 읽어서는 완벽히 익힐 수 없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연습을 통해 박자감과 힘의 세기 바른 자세 등을 익혀야 한다.

최근에는 각 지역의 소방서 및 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단체에서 상시 및 정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실습해보기를 권장한다.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region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